

## 開會答辭

邵 玉 銘

(國際關係研究中心主任)

朴東鎮 장관님, 薛毓麒 대사님, 그리고 신사숙녀 귀빈 여러분, 본인은 먼저 제 6차 中韓學術會議에 참석하기 위해 중화민국으로부터 오신 학자와 전문가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이번 회의를 주관하신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의 李相禹 소장님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대표들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고자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韓國國民의 희망은 南韓에 있으며, 中國國民의 희망은 臺灣에 있습니다.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간의 다방면에 걸친 성취는 이미 全世界 인사들의 감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北京과 平壤으로 하여금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대함과 안정성과 번영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공산국가들의 세력확장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中共과 北韓 양공산집단이 그 국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국민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하는 反制的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 두개의 共產集團은 부득불 약간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개선하고 또 경제 체제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문호개방을 통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남의 災難이나 禍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 그들의 그러한 정책이 실패하기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몇

가지 특수한 의문을 갖고 있으며, 여러 학자님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토론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첫째는 非市場經濟體制가 국제시장에 대한 경제능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하나의 봉건폐쇄적인 사회의 국민들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면역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의 낙후된 경제가 외부로부터의 외자도입과 과학기술의 도입과 그리고 외채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中韓學術會議의 고귀한 전통의 하나는 솔직한 의견교환과 객관적인 문제의 분석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이렇게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을 통일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다른 의견을 잘 듣고 의견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이번 회의에서 더욱더 발전되고 커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의가 더욱더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가 성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유쾌함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